스마트안양

2025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활동보고서

노동존중 도시 안양



Labor & Human Rights Center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소개

일반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안양시노동인권센터

▸ 대 표 자 : 최대호 (이사장)

▸ 소 재 지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7, 6층(비산동)

▸ 법인설립 : 2022. 1. 12. (센터 개소 : 2022. 8. 10.)

설립근거

▸ 근　거 : 「민법」 제32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목　적 : 안양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도모를 통해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

연　혁

▸ 2021. 07. 02. : 노동인권센터설립추진TF팀 설치

▸ 2021. 09. 29. :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 2021. 11. 30. : 노동인권센터 창립총회 개최

▸ 2021. 12. 28. :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설립 승인

▸ 2022. 01. 12. :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법인등기 완료

▸ 2022. 08. 10. : 센터 개소 및 업무개시

▸ 2022. 09. 07. : 취약 노동계층 법률지원 업무협약(법무법인 시민)

▸ 2023. 03. 07.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업무협약(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직업계고교)

▸ 2023. 03. 21. : 배달연합 업무협약(민주노총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경기지부, 라이더유니온 안양군포의왕지회)

▸ 2023. 08. 24. : 제6회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개최

▸ 2024. 03. 14. :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 2024. 04. 03.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안양지회 출범식

인력현황

▸ 조 직 (3팀)



▸ 정/현원

[단위 : 명, 정원/현원(여, 남)]

구분	계	센터장 (파견)	사무 국장	전문직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	파견 공무원
				7급	8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27	1	1	2	7	4	3	4	2	1	2
현원	18 (7,11)	1 (0,1)	1 (0,1)	1 (0,1)	0 (0,0)	1 (0,1)	4 (1,3)	2 (2,0)	1 (1,0)	0 (0,0)	7 (3,4)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내 용
합 계			1,458,965	
소 계			1,408,755	
민간 위탁금	행정 운영 경비	인 건 비	768,014	직원 기본급, 각종수당 등
		일반운영비	355,904	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사 업 비		284,837	2025년 노동인권센터 추진사업비
소 계			50,210	
도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지역 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25,000	상생협력의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25,210	제5권역 비정규직 노동자동아리 활성화

[2025년 노동인권센터 비전 및 전략]

비 전 — 일하는 사람들이 뭉치고 결속하는 끈끈한 안양

전 략	중점과제
개별 노동자 맞춤형 사업 추진	▶ 여성 이동노동자 고용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여성 이동노동자 정책 수립 ▶ 배달노동자, 시니어노동자,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 등을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 ▶ 감정(돌봄)노동자 권리보호 및 정신건강 관리
개별 노동자 조직화 연대 지원	▶ 모두를 위한 좋은 돌봄 한마당 추진 ▶ 비정규직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및 맞춤형 교육 실시 ▶ 노동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로서의 지역적 연대 강화
선진형 노동 복지 문화 형성	▶ 끌림 희망 리어카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 이동상담실 운영,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 등 노동문화 활성화 지원
노동인권센터 안정 및 성장	▶ 노동인권센터 교육장 시설 확장 ▶ 전자결재 웹기반 문서작성 시스템 구축 ▶ 안양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조사

2025년도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활 동 보 고 서

Contents

2025 노동인권센터 추진사업

노동 관련 법률상담 및 구제 ····· 06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차 : 톡톡 ····· 09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보수교육 ····· 12
학교와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육 ····· 15
돌봄노동자 네트워크 구축 및 권익증진 사업 ····· 18
노동 콘텐츠 웹진 제작 ····· 21
노동인권 길(역사)을 걷다 ····· 23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사업 ····· 26
끌림 희망리어카 사업 ····· 28
필수·감정노동자 심신치유(쉼뜰) 사업[지역참여형 노동협업] ····· 31
취약 노동자 심리상담 : 일과 마음의 소리 ····· 34
자립준비청년의 노동인권 멘토 : 길라JOB이 ····· 37
안양시 여성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 41
안양시 여성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 43
시니어 노동자 스마트 교육 ····· 46
경기도 제5권역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 48
노동인권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 52
대중교통 광고를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 54
모두를 위한 좋은돌봄 한마당 ····· 56
요양보호사×예술인 협업 프로젝트 ····· 59
알바생을 위한 노동법 교육 ····· 62
건강하고 행복한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 64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 67
안양시 주요 축제 연계 홍보 부스 운영 ····· 70

노동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요약

안양시 노동자 및 시민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동일터를 만들고자 노동자의 고충을 듣는 소통창구 역할과 침해된 노동자의 권익 회복을 위한 노동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

사업내용

-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 및 노무 상담창구 운영
- 취약 노동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사건 대리 지원
- 변호사 사무소와 업무협약을 통한 노동 고충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 지원
- 노동인권 침해예방 및 노동인권 진작을 위한 노동상담 사례집 등 발간

업무실적

■ 변호사 사무소 업무협약 및 법률자문계약 체결과 취약노동계층 법률지원 사업 운영

■ 2025년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2025.12.31.기준)

접수방법	합계	내방	전화	출장 등	인터넷
	448	151	180	29	88

상담유형	합계	임금		부당해고등	직장내괴롭힘	4대보험	노동조합	산업재해	인사노무	근로계약서 등
		체불	임금							
	681	78	97	127	90	60	20	41	37	131

처리내역	합계	상담	합의	자료검토	사건대리	서면작성	기타
	681	613	2	42	17	4	3

- 24년에 비해 노동상담 10% 증가

■ 노동발간물

- 2025년 변경되는 노동 관련 법률
- 2025년 노동상담 사례집

■ 연대 대응

- 노동조합 설립 조력
- 지자체와 연대하여 고용승계 지원

담당자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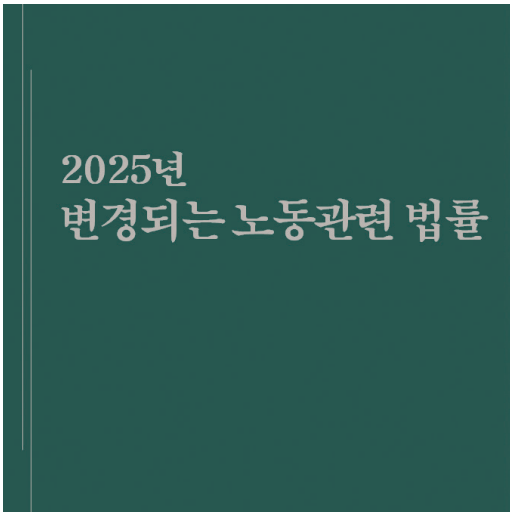
사람사는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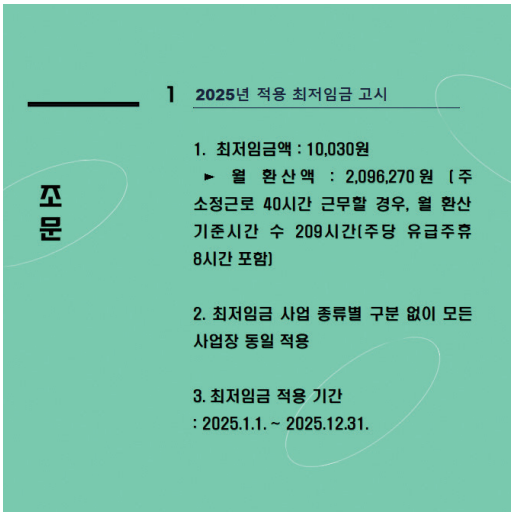
우리 노동 현장에는 여전히 노동인권을 침해당해 눈물 짓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 정규직임에도 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정년 보장은 요원하여 빈번하게 이직을 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입증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기관의 노동자, 권고사직을 당하였으나 해고로 알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노동자, 누구로 인 한 잘못인지 모르겠으나 일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산업재해 불인정을 받은 배달노동자,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되었으나 회사 의사에 따라 갱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 회사가 마음대로 정한 인사고과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인사평가로 치부하여 유일하게 갱신거절을 당한 노동자 등 노동현장에서 있었던 억울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인권 침해가 너무나 많지만 법률적 한계에 부딪혀 고충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해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단순한 '상담'을 넘어 노동자의 '삶'을 공감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거나 무례한 태도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절박한 심정을 단 한 뼘이라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노동자의 고충을 헤아리는 일은 단순히 법 조항을 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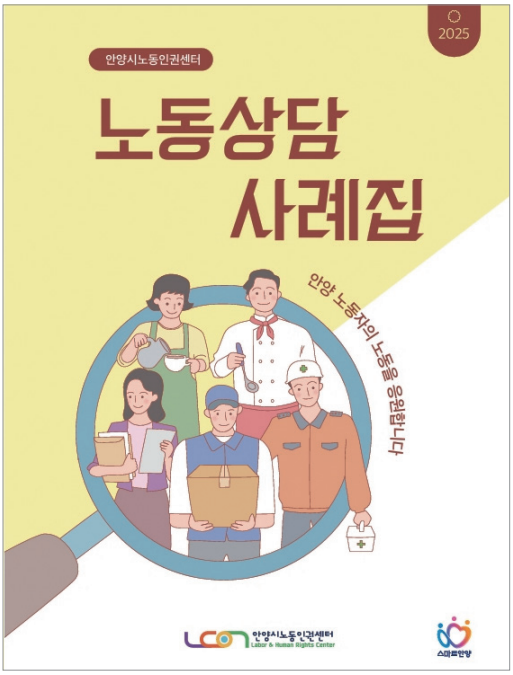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노동이 존중받는 만큼 '건강한 노동 윤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 관계를 넘어, 주체적인 노동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성이 타인에 대한 권력이나 동료를 향한 괴롭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일터 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나쁜 사업주의 역할을 답습하거나 동료 위에 군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노동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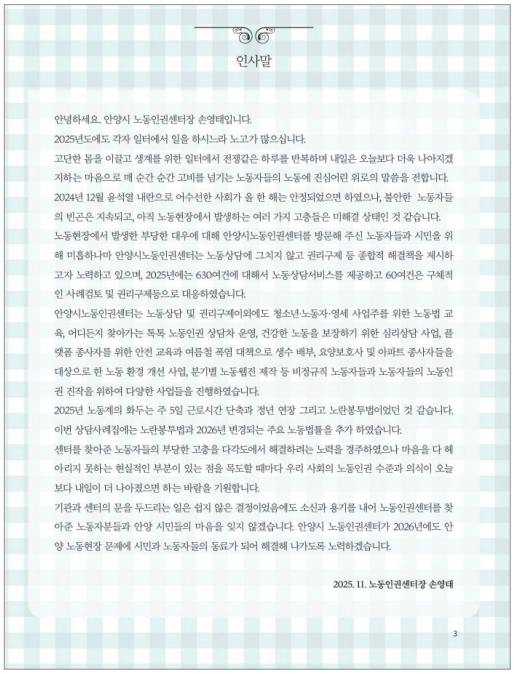
안양시 노동자의 권익, 우리가 지키고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일터의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가교 역할자로서 수행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련 팜플렛 “2025년 변경되는 노동관련 법률”





“2025년 노동상담 사례집”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차 : 톡톡

사업요약

매주 월 · 수 14:00~17:00 안양역, 인덕원역, 명학역, 국제유통단지, 스마트스퀘어, 시청 민원실에 주기적으로 같은 주에 찾아가서 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상담차 앞에서는 노동기초상식 리플릿 및 노동상식 웹툰 배포 활동을 하여 현장 가까이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요실적

쉬운 노동법이 되도록	- '일까치와 호무사'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노동상식 웹툰 1,000권을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노동인권센터에서 만든 노동상담 사례집을 재구성하여 자체 제작하였으며, AI를 활용하여 제작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 또한 캐릭터 스티커와 열쇠고리를 함께 제작하여 노동법이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편적 지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 노동인권센터에서 제작한 책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동상식 웹툰은 납본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2026년 상반기에는 등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안양시노동인권센터'를 검색하면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안양의 약 2만 개 소상공인 사업장에도 노동법 상담 안내문을 발송하여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노동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I 데이터 기반 운영장소 선정	- 더 많은 노동자를 만나기 위해 2026년부터 운영 장소를 추가하고자 경기도에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여 최적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동안구청 앞 동안노상주차장에서 추가로 톡톡을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장소 선정에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톡톡의 문을 톡톡 두드리세요!

2023년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차 톡톡'은 시민 · 현장 가까이에서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톡톡 차량은 역과 공업단지, 시청 민원실 앞으로 조용히 도착했고, 누구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노동 상담을 넘어, 시민들이 '노동권'을 먼저 인식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점입니다. 단순히 상담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까치 · 호무사 캐릭터가 등장하는 노동상식 웹툰을 직접 개발해 시민에게 노동법을 재미있게 전달했습니다. 만나서 상담을 받지 못한 시민도, 리플릿과 웹툰만 손에 쥐어가도 노동인권 기본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우체국 생활정보 홍보우편 시스템을 활용하여 특정 업종 소상공인에게 우편을 발송하였고, 국제유통단지 전체 동별 게시판 홍보물 부착, 일자리박람회 · 춤축제 · 산업진흥원 행사에서 협력 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센터 사업을 알렸습니다. 그 덕분에 상담 건수 자체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시민들이 "노동상담이 필요하면 톡톡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해였습니다.



안양역(25.2.24.)



스마트스퀘어(25.5.12.)



인덕원역(25.5.7.)



명학역(25.3.19.)



일까치×호무사 노동상식 툰



일까치×호무사 노동상식 툰



노동상식 툰 굿즈(열쇠고리, 스티커)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보수교육

사업요약

학교와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육 강의를 진행해주실 센터 위촉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사님들이 강의를 진행할 때 여러 도움이 될 내용을 들려주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청소년을 위한 노동 관련 법률, 노동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정책 등을 청취하며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의 강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워크숍을 통해 고충을 나누고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재충전을 통해 강사님들이 받으신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단합력을 제고하며 교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실적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보수교육	보수교육	- 2. 21. ~ 2. 25. 학교 노동인권 강사 보수교육 [6회] - [1회차] 현장에서의 노동법 사례 - [2회차] 청소년을 위한 노동자의 권리 - [3회차] 한국 사회 노동인권 바로 이해하기 - [4회차]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인권 - [5회차] 2025년 학교 현장의 변화 - [6회차] 2025년 학교 노동교육의 방향 - 종합 평가 : 사례 및 활동 프로그램 개발 / 노동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 /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워크숍	- 10. 20. 학교 노동인권 강사 워크숍 : 1회 / 26명 참석 - 2025년 학교와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육 사업 의견 공유 - 원데이 가죽 공예 클래스 체험 프로그램 실시 / 강사 소통의 시간

담당자 한마디

교실의 어벤져스가 탄생하는 과정

지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순회 정책 간담회에서 위촉 강사님들을 대표하여 강사님 한 분께서 겪은 본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저로서도 모르고 있던 진솔한 소회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노란색 안전모"를 벗겨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강의에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동]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육체적 노동을 상징하는 [노란색 안전모]를 벗긴다는 비유가 아마도 아이들의 마음 속에 편견을 없애고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인권 수업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그 일을 수업 내에 달성하고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주신 강사님들의 열의가 있기에 교육이 진행될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노동인권교육의 가치가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투자라는 것을 강사님들께서 몸소 공감해주실 때에 그 수업의 무게가 비로소 남달라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해주실 '교실의 어벤져스'의 성장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교 노동인권 강사 보수교육





학교 노동인권 강사 워크숍

학교와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육

사업요약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양시 학생들의 건강한 노동인식 형성과 권리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4월부터 10월까지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초등학교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각 학년에 맞는 주제와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인권 감수성 및 노동의 개념과 역사, 노동조합과 노동3권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자 권리”에 대해 총 22개 학교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전반 과정에서 강사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학교 담당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실적

학교와 함께하는 노동인권 교육	학교 노동인권 강사 간담회	- 1. 14. 학교 노동인권 강사 간담회 [1차] 18명 참석 - 11. 17. 학교 노동인권 강사 간담회 [2차] 22명 참석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업무협의회	- 2. 11.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업무협의회 [1차] 6명 참석 - 11. 17.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업무협의회 [2차] 6명 참석
	학교 노동인권 강사 위촉식	- 2. 14. 학교 노동인권 강사 위촉식 : 1회 / 21명 - 2025년 강의 협약 및 위촉장 수여
	학교 노동인권 강사 회의	- 3. 12. ~ 3. 17. 교안 작성 회의 및 강사 전체 회의 -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
	학교와 함께하는 노동인권 교육 운영	- 4. 7. ~ 10. 14. 학교와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 단계적 학습 내용 구성 - 노동의 기본 개념과 가치(초등) - 노동인권 감수성과 기본 노동법(중등) - 실제 근로계약과 권리 구제 방법(고등)
	최종 활동 평가	- 과제 및 제언 : 교육과정 지속 발전 / 참여기관 협력 강화 / 교육 대상 확대 - 성과 및 의의 :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총 22개 학교(377학급 8,167명)가 교육에 참여하여 설문조사 결과 초등 92%, 중등 87%, 고등 88%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담당자 한마디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노동인권교육

2023년 직업계고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중학교로 확대, 2025년에는 초등학교까지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들을 찾아가며 직접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이 사업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측과의 소통, 강사들과의 소통과 협조 끝에 이루어지는 이 사업에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지만, 여럿의 손을 거친 이 사업이 노력 끝에 올해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저 다행스럽고 제 개인적으로는 업무에 대해 한 단계 더 깨우치는 과정이자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곧 자라나 사회로 나올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건강한 노동인권의식을 지니고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편견이 형성되기 전 올바른 교육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후 성인 학습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연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양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와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육이 내년에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학교 노동인권 강사 위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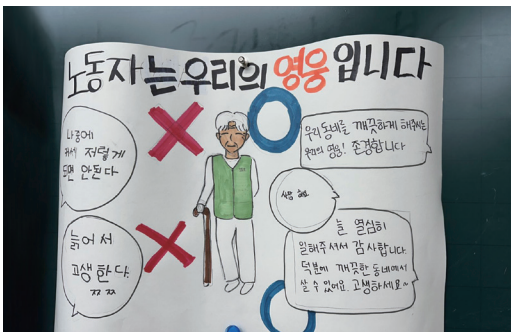




학교 노동인권 강사 회의









학교와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육

돌봄노동자 네트워크 구축 및 권익증진 사업

사업요약

돌봄노동자 네트워크 구축 및 권익증진 사업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과 노동존중을 기반한 좋은 돌봄 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돌봄 관련 민관 및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 구조를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여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실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노인돌봄노동네트워크 구성] 노동인권센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보호사협회(당사자), 노사민정협의회 + (추진기획단) 안양시장기요양기관 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안양고용노동지청, 경기도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안양여성의전화 - [운영횟수] 6회 - [주요내용] 노인돌봄노동자 처우 및 인식 개선 공동 목표 수립 및 추진 모두를 위한 좋은돌봄 한마당 기획 및 추진 협력
		- [돌봄안심사회 안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참여] 노동인권센터,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협회 - [참여횟수] 7회 - [주요논의] - 돌봄통합지원법 검토 및 지역 맞춤 통합돌봄 모색 통합돌봄 정책과 연계한 돌봄노동자 역할 강화 돌봄노동 영역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권익 증진 사업	요양보호사 조직화지원	- [추진목표] 노동권 사각지대 돌봄노동자의 집단적 권익대변 기반 마련 현장문제의 공론화와 정책제안 역량 강화 - [주요내용] 네트워크 기반의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활성화 방안 제안 신규회원 확대, 간담회 및 소통 구조 마련 지원
	협업 프로그램 운영	템플스테이 2회 마음산책 프로그램 2회 취약노동자 교육 1회 워크숍 1회 동아리 활동 및 힐링 프로그램(나들이, 원테라피 등) 운영

담당자 한마디

좋은 돌봄은 결국, 돌보는 사람을 함께 돌볼 때 가능하다.

네트워크는 돌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던 자리였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이런 연결들이 결국 제도를 움직이고, 현장을 바꾼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넓혀가는 일, 그리고 함께 만드는 좋은 돌봄의 길 위에서 제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 말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말하고 있는 목소리가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닿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요.

네트워크 사업의 끝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같이 웃고, 함께라서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사업이 가진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이 되는 날을 바라보며, 내년에도 묵묵히, 하지만 조금 더 단단하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노인돌봄노동네트워크





돌봄안심사회 안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요양보호사 조직화 지원





협업프로그램 운영

노동 콘텐츠 웹진 제작

사업요약

노동에 대한 지식과 설명을 제공하는 웹진을 반기별로 발행하여 대중이 편하게 노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노동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주요실적
노동 콘텐츠 웹진 운영	사업 요약	- 사업기간 : 연중 - 발간구분 : 정기간행물(반기별 정보간행물) - 발간방법 : 온라인(웹진사이트 운영), 오프라인(인쇄책자 배포) - 운영방법 : 집필진 섭외, 기고문 청탁, 웹진 기고문 등록, 인쇄 책자 제작
	웹진사이트 운영 (온라인)	- 일시 : 연 2회(반기별 발행) - 장소 : 온라인 웹진 플랫폼(웹플로우) - 내용 : 분기별 노동 관련 전문 기고문 및 칼럼 업로드 - 실적 : 반기별 웹진 발행 2회(기고문 16건 게재)
	인쇄 책자 배포 (오프라인)	- 일시 : 연 2회(2월호/8월호 발행 시) - 장소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및 유관기관(시흥시노동자센터 등) - 내용 : 정기간행물 인쇄 및 합본 발행 - 실적 : 인쇄 책자 발간 127부(상반기 50부, 하반기 77부)

담당자 한마디

시대의 질문에 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노동 인권의 안테나'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담론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웹진 노동연찬은 단순히 노동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노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 웹진은 사회의 핵심 현안에 기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해법을 모색하고,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 환경의 변화를 심층 분석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 제도와 정책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풀어내어 시민들이 변화하는 법과 제도 앞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공을 들인 부분은 '안양 지역과 노동 현장의 생생함'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좋은돌봄도시 안양'을 위한 지역 밀착형 제언부터, 도서관 사서와 비정규직 활동가의 에세이, 그리고 폐지 수거 어르신의 이야기까지 활자로 옮겼습니다. 이는 노동이라는 거대 담론이 사실은 우리 곁 이웃들의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가짜 3.3'과 같은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를 공론화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권리 찾기에도 앞장섰습니다.

온라인 웹진의 신속한 확산성과 오프라인 책자의 기록성을 활용해, 우리는 더 넓고 더 깊게 소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매체가 안양시 노동자들에게는 따뜻한 공감을, 우리 사회에는 날카로운 통찰을 던지는 든든한 '노동 인권의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웹진> 웹진



<노동연찬> 책자 표지(상반기/하반기)

노동인권 길(역사)을 걷다

사업요약

역사 속 노동자들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열악했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을 되새기고, 그 과정에서 현재에 주는 교훈을 공유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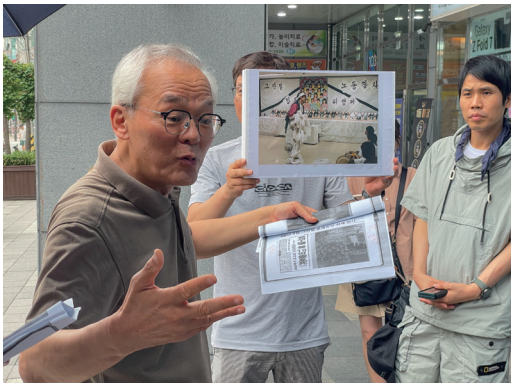
노동인권 길(역사)을 걷다	참여자	노동역사에 관심있는 안양시민 80명 (회차별 20명)
	노동역사 탐방	(1회)전태일이 걷던 길 : 전태일 다리~전태일 옛집터 (2회)안양시 노동역사 현장 : 박창수열사 투쟁현장~안양근로자회관 등 (3회)영등포구 노동인권 현장 : 양평동(옛 공장부지, 대한독립만세시위터 등) (4회)일제식민지 노동자 민중들의 꿈 : 서대문형무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노동역사 교육	-내용 : 안양시 노동인권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탐구 -1회 : 8. 9.(토) 19명 참여 / 2회 : 10. 23.(토) 26명 참여
	노동인권 영화 상영회	- 영화 : <태일이>애니메이션 - 일시/ 장소 : 11. 18.(화) 15시/ 범계cgv - 부대행사 : '전태일의 날'국가기념일 지정 필요성에 대한 피켓팅 진행 - 참여인원 : 45명 (매우만족 95%)
	평가 간담회	- 노동인권 길을 걷다 사업 참여자 25명 - 힐링프로그램 :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담당자 한마디

참여자들과 노동역사 현장을 함께 걷고 마주하는 경험은 노동인권을 '배우는 것'을 넘어 더 큰 울림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과거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자신의 노동경험과 연결해 이야기하면서 공감과 연대의 가치를 나누는 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힐링을 목적을 둔 프로그램과 달리 노동인권 역사라는 주제가 대중적으로 흥미를 끌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노동인권센터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 생각하며 참여자들의 센터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교육효과 측면에서 모두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앞으로도 「노동인권 길(역사)을 걷다」 사업이 지역의 노동 역사와 현재의 노동 현실을 잇는 지속적인 교육 ·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용과 방식 모두를 더욱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린힐 참사현장



한국독립만세 시위터



단체사진



영화 <태일이> &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피켓팅



안양시 노동인권 역사 교육



평가간담회 및 크리스마스 행사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사업

사업요약

배달노동자의 교통 · 기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키트 및 야광 반사스티커를 배부하고 혹서기 얼음물 · 생수 나눔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플랫폼공제회와 협력해 배달노동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동노동자의 안전권 보호와 지역사회 기반의 노동인권 강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주요실적

꼴림 희망 리어카 사업	사업 요약	- 사업기간 : 3월~11월 - (안전지킴이) 도로 파손 및 훼손 공공앱 직접 신고로 배달 노동환경 개선 - (안전교육)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배달노동자 맞춤형 노무교육 실시 - (캠페인) 혹서기 무더위를 막기 위한 현장 생수나눔 실시
	리어카 광고	- 대상 : 관내 폐지수거인 7명 - 장소 : 안양시 - 내용 : 리어카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홍보물을 부착하여 사회공헌 활동 및 노동환경 개선



담당자 한마디

도시의 속도를 견너는 이들을 위한 '현장 기반 안전인권 보호망'

(배달노동자 안전지킴이 사업)

도시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그 속도를 몸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의 안전은 여전히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 배달노동자는 단순한 서비스 인력이 아니라 도시의 흐름을 움직이는 핵심 노동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안전은 늘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배달노동자 안전지킴이 사업은 바로 이 지점을 다시 묻는, 우리 시대의 노동 질문에 대한 작은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배달노동자들의 '위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폭염 속의 무리한 배달, 겨울철 블랙아이스, 야간 운행의 시인성 저하, 교통사고 위협, 과중한 플랫폼 압박까지 – 이 모든 것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지킴이라는 이름 아래 다음과 같은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야간 시 가시성을 높이는 야광 반사 스티커, 혹서기 작업 중 탈진을 방지하는 얼음물 · 생수 지원, 사고 대비 필수품을 구성한 안전 키트 배부, 그리고 플랫폼 공제회와 함께 한 맞춤형 안전교육은 단순한 물품 지급이나 교육이 아니라, "당신의 안전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라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배달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생생했습니다. 플랫폼의 '속도 경쟁'이 만드는 압박, 초단위로 계산되는 수익구조, 도로 위에서 느끼는 고립감, 작은 사고 하나가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불안 –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다시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안전'이 아니라 안전을 둘러싼 존엄과 권리였습니다.

배달노동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시민이자 노동자이며, 그들의 건강과 생명은 사회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영역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확산성과 오프라인 캠페인의 현장성을 통해 우리는 배달노동자와 더 넓게, 더 가까이 연결되고자 했습니다.

안전지킴이 사업은 물품을 나누는 활동을 넘어 배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도로 위의 위험을 개인의 운에 맡기지 않는 사회, 이동 노동자가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양시노동인권센터와 플랫폼 공제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끌림 희망리어카 사업

사업요약

폐지수거인들에게 경량화된 리어카를 무상 임차하고 센터 홍보물을 부착하여 광고비를 지급하여 폐지수거인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주요실적

끌림 희망 리어카 사업	사업 요약	- 사업기간 : 연중 - (노동인권센터) 폐지수거인 관리 및 광고비 지급 - (복지관) 폐지수거인 사례관리 - (끌림협동조합) 경량화리어카 무상임차 및 유지·보수
	리어카 광고	- 대상 : 관내 폐지수거인 7명 - 장소 : 안양시 - 내용 : 리어카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홍보물을 부착하여 사회공헌 활동 및 노동환경 개선

담당자 한마디

골목의 노동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삶을 들여다보는 '이동 인권의 손길'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지역의 가장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담아낼 공공의 손길은 아직 부족합니다. 끌림 희망리어카 사업은 단순히 '장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넘어 도시 안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을 비로소 보이게 만들기 위한 사회적 실험이자 공동체적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폐지수거 어르신들이 마주한 거대한 난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령화, 극심한 사회적 고립, 감정노동화된 재활용 수거 노동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 이 모든 문제는 단순한 복지의 영역을 넘어 노동권과 존엄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끌림 희망리어카 사업은 '도움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존엄과 자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경량화 리어카의 무상 임차는 단지 장비 지원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허리와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를 덜어 삶에 다시 속도를 부여하고, 골목마다 위험했던 이동을 한층 안전하게 바꾸는 노동환경 개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리어카의 유지 · 보수는 단순한 정비가 아닌, "당신의 노동은 보호받아야 합니다"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혼자가 아닌 삼자 협력의 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어르신들의 경제 · 노동권을 지지하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기능했고, 지역 복지관은 사례관리를 통해 정서 · 건강 · 복지 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끌림은 안전하고 가벼운 리어카를 제공하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들의 실제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했습니다. 각 기관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였고,이 협업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어르신들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현장의 생생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거리로 나서는 어르신들의 작은 일상, 쌓아 올린 폐지 더미 위에 얹힌 삶의 무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던 노동의 시간들을 기록하며 이 도시의 가장 조용한 노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다시 목격했습니다.

'폐지수거 노동'은 이름 없는 일이 아니라, 도시의 순환을 지탱하는 가장 오래된 생태계이자 필수 노동입니다. 희망리어카 사업은 바로 그 노동을 다시 존중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끌림의 경량화 리어카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어르신들에게는 안전, 지역사회에는 책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노동의 존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도구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작은 리어카가 어르신들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우리 사회에는 더 나은 노동과 더 두터운 연대를 향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요양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필수·감정노동자 심신치유(쉼뜰) 사업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요약

필수 · 감정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감정소모, 불규칙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소진이 동시에 누적되는 특성을 가진 노동자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공동주택 경비 · 미화 노동자 등은 반복적인 동작과 큰 육체적 부담, 이용자 및 민원 대응으로 인한 감정노동을 함께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위한 시간과 접근 가능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인 「쉼뜰」을 통해 마음치유 프로그램(스트레스 진단 및 관리법, 원예테라피)과 몸건강 회복 프로그램(몸펴기 생활운동)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수 · 감정노동자의 정서적 회복과 자존감 증진을 도모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실적

참여자 노동역사 탐방	- [목적] 필수·감정노동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소진 예방 - [구성] <1강> 스트레스 진단 및 자기탐색 <2강> 원예테라피 - [대상] 필수·감정노동자 45명(15명×3기수)
몸건강 회복 프로그램	- [목적] 필수·감정노동자의 신체 건강 회복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공동 운동 참여를 통한 노동자간 유대감 강화 등 - [구성] 몸펴기생활운동 12회(기본운동/생활운동/맞춤운동) - [대상] 필수·감정노동자 20명(20명×12회)

담당자 한마디

몸도 마음도 쭉~쭉~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울 자리도 말할 자리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몸건강 회복 프로그램에서는 아프다고 말씀하시던 분들의 표정이 회차가 지날수록 점점 밝아졌습니다. 잘되지 않던 동작을 스스로 해내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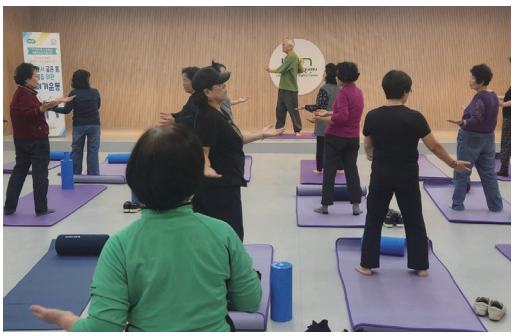
몸과 마음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나를 조금 돌본 날이었다”는 참여자의 말이 이 사업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거창해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마음치유 프로그램



몸건강 회복프로그램

취약 노동자 심리상담 : 일과 마음의 소리

사업요약

심리적 부담 · 직무 스트레스 · 가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감정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안양시 거주 또는 시 소재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10회, 회당 50분) 및 단체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전문 심리상담기관 2개소와 협약을 통해 시민이 직접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실적

이용자 규모	- 총 41명, 206회 상담 진행 - 개별상담 23명·204회(심리검사 5회 포함) - 단체상담 18명·2회(감정 향수 만들기, 조직 소통 강화 특강)
이용자 특성	- 여성 88%, 20~30대 56% - 일·가정 양립·자녀 문제로 인한 심리 부담이 상담 신청 주된 이유 - 교육 서비스 업종의 노동자 신청이 많았음
상담 주제	- 우울·불안·미래 불안 등 "본인 신상 문제"가 36.8%로 가장 많음 - 직무스트레스·대인관계 상담이 뒤를 이음
만족도	- 만족도 설문 결과 5점 만점 중 4.8~5.0점 전반적 만족도 매우 높음 - "회사, 가족 돌봄, 이성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며 갑자기 혼자가 된 상황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런 좋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심리적으로 괴로움이 많아 안 좋은 생각이 날 때가 많은데 이겨내 보려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을 알게 되어 삶의 질이 올라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과 설문조사 등도 신청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어서 접근이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개선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조용히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편안함의 습격」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 30분이 지나는 시점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귀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는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팔과 다리의 관절이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죠. 어떤 사람은 폐에서 공기가 흐르는 소리나 피가 경동맥을 통해 뇌로 흘러가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처음에 방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건 자신의 소리예요.” 일을 할 때 다양한 상황과 사람의 소리를 듣느라 내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전히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그동안 해답이 없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관점을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를 제시하는 것도 심리상담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잔소리처럼 들리는데 상담사님이 말씀하시면 정곡을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 아닐까요.

2025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 심리상담

일과 마음의 쉼터

신청대상 안양시 거주 또는 안양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

※ 취약계층 노동자란? 비정규직 · 5인 미만 사업장 · 여성 · 고령 · 감정노동자 등 노동관련 법, 제도 보호에 취약한 노동자

신청방법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 》 nodong-inkwon.or.kr

신청	검토	상담예약	심리상담
QR코드 촬영 또는 홈페이지 내 신청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통보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시간 예약	상담센터 방문 (10회)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링크(네이버폼)를 통한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1522@korea.kr) 제출

이용시간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9시
토 | 오전 10시 ~ 오후 5시

상담장소 ※ 두곳중택1

내맘애봄 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64, W에이스타워 5층)

별심은나무 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동안프라자 4층 404호)

제공내용 직무 스트레스, 관계 및 소통 불화 등
1:1 맞춤형 상담 (심리검사도 가능)

문 의 안양시노동인권센터
☎ 031) 360-1724



LCR Labor & Human Rights Center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자립준비청년의 노동인권 멘토 : 길라JOB이

사업요약

길라JOB이는 시설 퇴소 청소년 · 자립준비청년이 학업 · 취업 · 정서문제 앞에 혼자가 되지 않도록, 멘토와 1:1 또는 1:다수로 묶어 장기간 동행하는 멘토링 기반 노동인권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운영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단발성 모임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조별(매칭 기반) 멘토링이 실제 자립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구조로 안착된 것입니다.

2023년에 1기 모집을 시작으로 2025년 3기까지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멘토(8명)와 멘티(9명) 총 17명이 8개 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멘티가 원하는 시점까지(최대 39세) 장기간 소규모(2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말 멘티의 지속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참여 인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참여한 멘티가 3명으로 내년에는 본격적인 자립이 시작되는 해에 도달하였습니다.

멘티는 안양에 소재한 아동 ·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으로 시설의 자립 담당 선생님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격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좋은 어른으로서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노동의 중요성을 자립준비 청년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중 하나이므로 현직에 있는 노동자여야 합니다. 셋째, 5년 이상 연간 5회 참여가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연간 모집된 예비 멘토는 다음 해 초에 멘토 교육을 통해 최종 선발됩니다. 현재 멘토는 공무원, 심리상담사, 환경 분야 스타트업, 문화 · 예술 · 교육 · 집필 프리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 다양한 직군의 멘토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

멘토 교육	- 추진시기 : 3월 - 교육대상 : 1~3기(신규) 멘토 4명 - 교육내용 : 멘토의 역할과 활동 예시, 멘토링 어려움 해결 방법
직업특강	- 추진시기 : 4월 - 참석자 : 12명(멘토, 멘티, 신규 멘티 참여 희망자 포함) - 내용 : 현직 멘토 2명의 직업 소개
시설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 추진기간 : 1월~11월 - 교육대상 : 청소년쉼터 등 5개소 - 추진실적 : 11회, 156명 대상 교육 실시 - 내용 : 노동의 개념과 가치, 근로기준법
간담회 및 보고회	- 추진시기 : 6월, 12월 - 참석자 : 간담회(8명), 보고회(11명) - 내용 : 2025년 추진 실적 보고 및 향후 보완 방향 논의
힐링캠프	- 추진시기 : 10월 - 장소 : 파주 헤이리마을 - 참석자 : 6명 - 활동내용 : 가죽공예 체험 및 한국근현대사박물관 관람 등
집단, 또래 멘토링	- 추진시기 : 4월, 8월, 11월 - 참석자 : 총 23명 - 모임의 의의 : 참여자 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완충 창구, 다양한 직업의 멘토와 교차 대화
조별 멘토링	- 추진시기 : 5월~12월 - 추진실적 : 22회, 17명(멘토, 멘티) - 주요내용 : 개별 맞춤형 입시 전략 코멘트, 생활 안부 확인 등

담당자 한마디

3년의 결실, 꾸준한 만남

3년의 만남을 지속하며 조별 멘토링이 정착된 2025년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누군가가 끝까지 나를 기억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해였습니다.

저는 중2 때 멘티 친구들과 고3 수능이 끝나는 해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지 반신반의하며 4년이 지난 그날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모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것도 어른이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경험은 감동을 넘어 인생의 자양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른의 관점에서는 약속 하나 지키는 게 대수가 아닐 수 있지만 나이가 더 어린 사람 입장에서는 인생의 큰 부분을 좌우할 수도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자원봉사를 해 주는 멘토분들, 피드백을 주시는 협약기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곁을 내어주는 멘티 청소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합니다. 또한 꾸준한 만남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직업특강(4.14.)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6.18.)



힐링캠프(10.27.)



단체 멘토링(11.14.)



간담회(6.25.)



보고회(12.10.)

안양시 여성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사업요약

안양시 여성이동노동자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

주요실적

연구개요	- 연구목적 : 안양시 여성이동노동자 실태를 정량(설문), 정성(심층면접)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여건과 젠더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 연구대상 : 안양시 여성이동노동자 200명 ▶ 7개 직종 : 요양보호사 재가사회복지사, 보험설계사, 프레시매니저, 학습지교사, 생활가전 관리서비스사, 가스검침원, 가사근로자 - 연구방법 : 설문조사, 심층면접 ▶ 설문기간 : 2025. 7. 14. ~ 8. 4.(3주간)
주요내용	- 안양시의 여성 이동노동자의 현황과 노동조건 실태를 파악 - 안양시 특성에 적합한 여성 이동노동자 정책 수립
정책제언	1. 노동권 보장 및 고용 안정성 강화 2. 휴식권 및 이동 환경 개선 3. 건강권 및 안전망 강화 / 감정 노동 보호 4. 정책 참여 및 인식 제고 / 당사자 참여형 정책 수립

담당자 한마디

안양시 여성 이동노동자를 위한 정책 제언

본 실태조사는 안양시 여성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삶의 조건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및 지원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제도와 공식 통계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 이동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여성 이동노동자가 겪는 비용 부담, 휴식 공간의 부재, 감정노동 등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조사 기간과 표본 규모의 한계는 있으나, 본 실태조사는 향후 정례적인 조사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안전,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요를 구체화하는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최종보고회1



최종보고회2

안양시 여성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사업요약

여성 이동노동자들에게 카페쿠폰을 제공하여 휴식공간을 마련해주고 소통과 힐링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실적

참여자 모집	- 안양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여성 이동노동자 80명 (요양보호사 : 25명, 예술·체험강사 : 19명, 보험설계사 : 14명, 수도검침원 : 14명 프레시매니저 : 4명, 제품판매직: 2명, 교육컨설팅 : 1명, 사회복지사 : 1명)
쿠폰지급	- 쿠폰기간 : 6/2~11/28 (6개월) - 격주 1인당 최대 10,000원 모바일 쿠폰 지급 : 14회
교육& 힐링 프로그램	- (1회) 응급처치 (심폐소생술)교육 ▶ 참석인원 : 25명 / 만족도 96% - (2회) 셀프힐링 타로카드 ▶ 참석인원 : 20명 / 만족도 100% - (3회, 4회) 목공체험 (연필꽂이, 도마) ▶ 참석인원 : 40명 / 만족도 100%
노동존중 캠페인	- 일시 / 장소 : 11월 11일 12시~16시/ 범계역, 만안구 사업장 - 시민대상 정책 설문(여성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내용반영) - 응원메시지 작성 및 빼빼로데이 행사 - 여성 이동노동자 근무지 방문 : 응원메시지, 방한용품 전달

담당자 한마디

당신이 멈춘 그곳이 쉼터가 되다 "잠시, 여기"

여성 이동노동자는 다양한 직종에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일하고 있으나 '이동노동자'의 문제에 범주화되지 않고 비가시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특정 장소로 이동하면서 전후의 시간을 보내며, 방문 시간이 갑자기 변경될 때 남는 시간을 보내야하는 경우가 많지만 휴게권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직종마다 일의 특성에 차이도 존재하지만 이동노동자는 쉼터라는 물리적 공간설치 외 이동 특성을 반영한 쉼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카페를 선정하여 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였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주 새로운 주제로 소통하며 서로를 응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이동노동자 다수가 감정 노동자들이어서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리고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사업장 방문



설문조사



목공체험



셀프 치료 타로



심폐소생술



보고회(12.10.)

시니어 노동자 스마트 교육

사업요약

경비 · 미화 등 주로 노인 세대가 많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폰 및 앱(APP) 활용 등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여 시니어 노동자의 디지털 장벽 해소와 노동인권 환경 증진

주요실적

■ 시니어 노동자 스마트 교육 개요

· 교육기간 : 2025. 3월 ~ 7월 (총 10회)
· 교육장소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교육장
· 교육방법 : 대면교육 (1회, 2시간)
· 교육업체 : 주식회사 캐어유
· 교육인원 : 총 247명

3/11	3/25	4/8	4/22	5/13	5/27	6/10	6/24	7/8	7/22
24명	24명	23명	26명	25명	25명	26명	22명	25명	27명

· 교육내용 : 키오스크, 스마트폰 및 앱(APP) 활용 등

담당자 한마디

스마트 교육에 참여한 시니어 노동자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 담당자로서 가장 성취감이 큰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스마트 교육 사업을 준비해 좋은 기회를 주어 고맙다고 말해주신 시니어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교육을 준비하고 더 많은 시니어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진행하겠습니다.



이론교육



스마트 기기 교육



키오스크 교육



스마트 기기 실습



키오스크 실습



스마트폰 활용 실습

경기도 제5권역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사업요약

기업 복지에서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문화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과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실적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요약	- 사업기간 : 4월~12월 - 운영방법 : 지원동아리 선정(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동아리 심사 및 활동 지원 - 추진실적 : 동아리 활동지원 총 98회(돌봄하모니 19회, 돌봄멜로디 19회, 내건내돌 11회, 평화의 소리 7회, 활짝꽃활짝우리 6회, 힐링타임 5회, 딩가딩가 8회, 기네스 8회, 배나실 5회, 난타 10회)
	사업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 일시 : 연 2회 - 장소 :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회의실 - 내용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컨소시엄) 구축, 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담당자 참여를 통한 사업 방향성 논의 - 실적 : 컨소시엄 회의 2회 운영 (10명 참여)
	노동자 동아리 발굴 · 육성 사업 실시	- 일시 : 2025. 6. 11. (선정심의) ~ 연중 - 장소 :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및 관내 동아리 활동 장소 - 내용 : 노동자 자조 모임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공모 및 사업비 지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한 지원 대상 선정 (동아리당 최대 150만원 지원) - 실적 : 10개 동아리 선정 및 육성(신규 7개, 기존 3개 / 76명 참여)
	노동자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 일시 : 8월, 12월 - 장소 :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회의실 - 내용 :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비용 정산 협의, 활동백서 제작 방안 논의 - 실적 : 간담회 2회 운영 (4명 참여)

담당자 한마디

현장의 파편화된 노동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어내는 시간

노동은 각자의 일터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고충과 보람은 결코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가 바쁜 일상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소통 창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제가 담당한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은 이처럼 흩어져 있던 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어, 노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신규 동아리 7개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자조 모임이 선정되었습니다. 76명의 참여자가 단순히 취미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일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처럼 조직화되기 어려운 분들이 동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연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은, 그 어떤 행정 서비스보다 실질적인 지지 체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운영과 정기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소중한 통로였습니다. 전문가와 노동자, 그리고 행정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시간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안양시 노동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단편적인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한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따로'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 '함께'를 고민할 때 노동의 질은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앞으로도 동아리 활동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안양시 노동자들이 서로의 든든한 동료가 되고, 건강한 노동 문화를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돌봄하모니> 활동 사진



<돌봄멜로디> 활동 사진



<내건내돌> 활동 사진



<평화의 소리> 활동 사진



<활짝꽃활짝우리> 활동 사진



<힐링타임> 활동 사진



<딩가딩가> 활동 사진



<기네스> 활동 사진



<배나실> 활동 사진



<난타> 활동 사진

노동인권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사업요약

노동인권 관련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 게재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는 노동인권 증진 환경 조성

주요실적

■ 노동인권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요

▶ 사업기간 : 2025. 7. ~ 11.

▶ 사업대상 : 관내 노동자 및 시민

▶ 사업내용

–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를 통한 강의 콘텐츠 자체 촬영 및 제작

– 팟캐스트(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콘텐츠 기획 및 구성

– 홈페이지 및 소셜매체(유튜브)를 통한 강의 콘텐츠 게시 및 홍보

▶ 콘텐츠명 : 노동잡(JOB)썰 (노동자의 다양한 잡(JOB)에 대해 썰을 풀다)

①	배달 노동자	조희민 (라이더유니온 경기지회 시흥분회 대의원)
②	돌봄 노동자	이시정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획위원장)
③	예술 노동자	권요원 (작가)
④	경비·미화 노동자	신영배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
⑤	공인노무사	최한솔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담당자 한마디

강의 계획과 준비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역시 실제로 콘텐츠를 자체 촬영하고, 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휴직하기 전에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육아로 인한 손목 부상으로 편집 작업조차 어려운 일이었지만, 각각의 콘텐츠에서 열정적으로 소신있게 강의해 주신 전문가님들 덕분에 걱정했던 것보다 콘텐츠가 좋게 제작되어 다시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경험이 쌓인 만큼 내년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프닝



본편(배달노동자 편)



본편(공인노무사 편)

대중교통 광고를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사업요약

2025년 대중교통 광고 사업은 예산 감소에 대응하여 비용 효율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광역 단위의 지하철 및 일반버스 광고를 병행했던 전년도와 달리, 지역 주민의 생활권에 밀착된 마을버스를 단일 매체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이미지 노출을 넘어 QR코드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센터의 사업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선별 광고 효과를 측정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주요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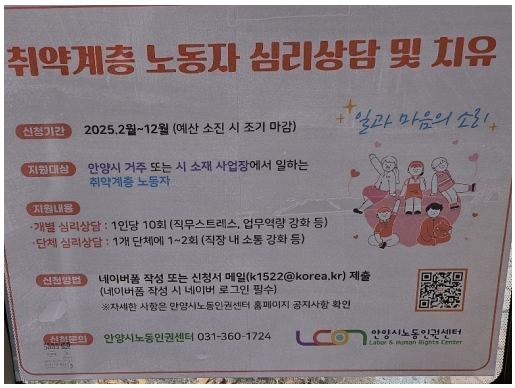
버스(광고위치)	노선번호	대수	광고 내용
마을버스 (내부 중앙문, 중앙문 옆)	안양2-1	2대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치유, 끌림 희망리어카, 돌봄 한마당, 노동상식 웹툰, 무료 노무상담, 노동인권 상담차 홍보, 우수아파트 인증 등
	안양6-1	2대	
	안양6-2	4대	
	안양6	4대	
	안양5-1	4대	

담당자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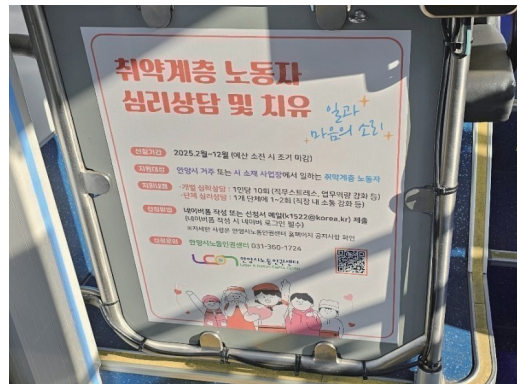
2025년은 예산의 제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센터를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한 한 해였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지하철과 일반버스 광고를 제외하고 마을버스에 집중한 것은, 안양시 구석구석을 누비는 마을버스의 '반복 노출'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광고물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즉시 센터 홈페이지나 상담 채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동 유도형' 광고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내부의 혼잡도와 이동 중 스마트폰 사용 패턴 등으로 인해 실제 QR코드 스캔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일 매체(마을버스) 운영의 한계와 정보 과잉 시대의 높은 장벽을 실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비록 정량적인 데이터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길과 등하굣길에서 센터의 이름과 주요 사업을 꾸준히 노출하며 친밀도를 높인 점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202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생활 밀착형 매체인 택배 트럭 광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마을버스의 '인지 효과'와 택배 트럭의 '타깃 마케팅'을 결합한 입체적인 홍보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노동자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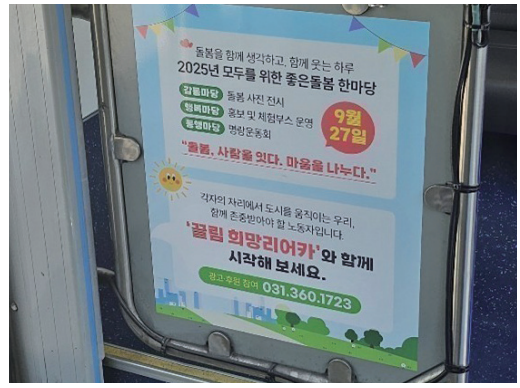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중앙문)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중앙문)



끌림 희망리어카 및 돌봄 한마당(중앙문)



끌림 희망리어카 및 돌봄 한마당(중앙문 옆)



노동상식 웹툰 및 우수아파트 인증(중앙문)



노동상식 웹툰 및 우수아파트 인증(중앙문 옆)

모두를 위한 좋은돌봄 한마당

사업요약

노인돌봄노동자의 노고를 조명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모두를 위한 좋은돌봄 한마당」을 기획 ·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노동존중 돌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당사자인 요양보호사와 종사자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하여, 행사 전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돌봄사진전, 명랑운동회, 공연, 체험 · 홍보부스 운영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웃으며 쉼을 얻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은 존중 받을 때 더 따뜻하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좋은돌봄'은 좋은 노동에서 시작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실적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	- [추진기획단 구성]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노인돌봄노동네트워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안양지회,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안양시장기요양기관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안양고용노동지청,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안양여성의전화 - [운영횟수] 5회 - [주요내용] 모두를 위한 좋은돌봄 한마당 기획 및 추진 협력
모두를 위한 좋은돌봄 한마당	- [일시] 2025. 9. 27.(토) 09:30~15:00 - [장소] 안양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 [프로그램] 개막식(동아리공연, 상징의식, 노동인권 활성화 유공 포상 등) 명랑운동회/돌봄사진전/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11개 기관 참여) ※ 노인돌봄노동자(시설장 포함)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450여 명 참여

담당자 한마디

돌봄을 돌보는 하루

이 사업을 처음 준비할 때부터 단순히 행사를 한 번 치르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돌봄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을 잘 해내고 있으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계기로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하는 일까지 매 순간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의를 거듭할수록 이 행사는 꼭 필요하다는 확신과 반드시 잘 치러야 한다는 책임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오며 서로 손을 맞잡고 웃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공연 후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 오늘은 내가 대접받는 날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던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 장면들을 보며 힘들었던 준비 과정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돌봄은 직업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내년에도 돌봄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개막식



국민의례





동아리 공연



노동인권활성화 유공 포상 시상



상징의식





명랑운동회





돌봄사진전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요양보호사 x 예술인 협업 프로젝트

사업요약

요양보호사 × 예술인 협업 프로젝트는 요양보호사와 예술인의 협업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정서적 회복과 자존감을 높이고, 예술적 표현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선정을 계기로 리더예술인과 참여예술인(문학 · 연극 · 음악 · 영화 분야) 5명이 매칭되었으며, 7~8월에는 예술워크숍을 통한 창작 활동이, 9~10월에는 공연 준비와 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10월 29일에는 성과공유회 '나를 돌보는 예술마당'을 개최하고 연극공연과 전시를 통해 주변과 성과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돌봄노동자 스스로를 노동자이자 한 개인으로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예술을 매개로 한 새로운 노동복지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실적

사업선정	- [공모사업 선정] 2025. 4. 30.「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사업 선정 ▶리더예술인 및 참여예술인 매칭 완료(문학·연극·음악·영화 분야) 5명
예술워크숍	- [기획 회의 및 협업 논의] 3회 - [예술워크숍 운영] 6회 - [연습] 10회
성과공유회	- [제목] 나를 돌보는 예술마당 - [일시] 2025. 9. 29.(수) 18:00 - [장소] 안양시노동인권센터 5층 교육장 - [프로그램] 예술워크숍 산출물 전시 연극 공연「아·맛·나」

담당자 한마디

예술을 통해 노동을 다시 보다.

연극 연습 날, 대본을 손에 꼭 쥐고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당일, 그분은 무대 위에서 또렷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사업이 단순한 예술 협업 활동으로만 평가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한 예술인들도 참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웃고 울며 기다려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말투와 표정까지 놓치지 않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 역시 제 일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누구를 돕는다는 말보다,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된 시간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립니다. 예술과의 협업을 통해 노동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개인적으로도 오래 기억에 남을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알바생을 위한 노동법 교육

사업요약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첫 노동 경험을 알바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부당대우를 겪을 위험 역시 높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같은 문제는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알바생을 위한 노동법 교육」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을 쉽고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전달했고, 부당한 대우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노동인권센터의 역할과 상담창구를 함께 소개하여, 필요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일터에서 당하는 부당한 일들이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경험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첫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주요실적

노동법 교육	- [일시] <1회차> 2025.1.31. <2회차> 2025.7.25. - [대상] 행정체험연수 대학생 200명(회당 100명/2회) - [주요 교육내용]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확인 방법 최저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이해와 계산 사례 임금명세서 확인 요령 임금체불·부당해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법 노동인권센터 상담 및 권리구제 창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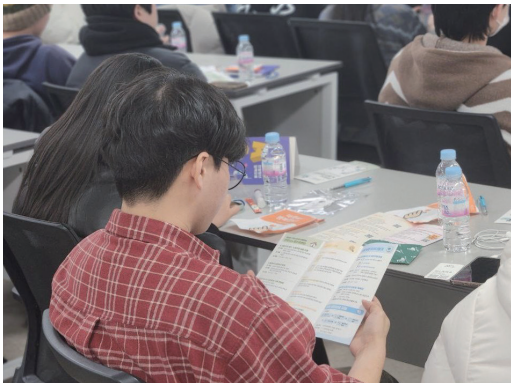
담당자 한마디

알바도 노동입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를 넘어서, 나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감각을 처음 심어 주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첫 일터에서 상처부터 배우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험을 더 이른 시기에 만날 수 있도록 현장에 닿는 노동법 교육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노동존중도시 안양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양시
우리동네 안심사업장


실천 노동 권리 네비게이션

건강하고 행복한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요약

아파트 관리노동자(경비, 미화)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아파트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생캠페인, 상생협약 체결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실적

건강하고 행복한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캠페인	- 목적 : 아파트 구성원의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 - 캠페인 횟수 : 3회 - 대상 : 샛별한양아파트, 인덕원센트럴푸르지오,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상생나들이	- 일시 : 2025.7.12.(토) - 장소 : 용인한국민속촌 - 참석대상 : 입주민대표, 아파트노동자, 관리사무소장 등 75명 - 프로그램 : 전통가옥 관람, 전통공연 감상, 전통 체험(전통엿 만들기)
	상생협약	- 상생협약 체결 : 8개 아파트단지 - 협약참여자 : 입주민대표, 노동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 상생협약 내용 : 아파트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 우수아파트 선정 : 5개 아파트단지 - 사업내용 : 우수아파트 현판 부착, 우수아파트 인증 현판식 진행
	상생교육	- 상생교육 : 4회, 60명 참석 - 일시 : 2025.11.5.(수).~6(목) - 교육 내용 1. 갈등예방과 해소를 위한 소통 방법 2. 아파트노동자 관련 법령 해설 3. 원예테라피(꽃바구니 만들기, 호접란 심기)
	근무제도 컨설팅	- 참여 아파트 단지 : 3개 아파트단지 - 아파트노동자 근무형태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 3회 -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안 보고서 전달 및 상담 : 3회

담당자 한마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상생아파트)사업은 경기도와 안양시의 지원으로 아파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3개월 초단기 계약이 늘어나고 있고 열악한 휴게공간 등의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아파트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등 아파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의 노력과 협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상생아파트 사업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극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대를 이어 기어코 산을 옮기겠다는 우공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아파트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면 아파트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고 노동자로서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사업에 임하였습니다.

상생아파트 사업 중 몇가지를 돌아보면 상생나들이는 참가자들이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용인한국민속촌에서 같이 어울려 전통가옥도 관람하고 전통엿도 만들면서 그날만큼은 모두가 대접받고 존중받는 주인공의 기분을 느꼈기를 바라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주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단지의 모범 사례가 널리 전파되어 아파트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노동자가 행복해야 입주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생나들이



상생협약 체결식



상생교육(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소통 방법)



상생교육(꽃바구니 만들기)



근무제도 컨설팅



우수아파트 인증 현판식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사업요약

2025년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사업주 · 인사 · 노무 담당자 포함)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경기 남부권 공동사업입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경기 남부 4개 단체와 함께 5월부터 9월까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였으며, 직종별 맞춤형 주제(근로자성 판단, 근로계약서 작성, 5인 미만 사업장 규정, 해고 · 임금 · 수습 등)를 현장 대면(1시간 30분~2시간) 방식으로 교육했습니다.

주요실적

교육 실적	- 6회, 96명 교육 - 6개 업종(요양원 원장, 미용업 원장, 소공인, 음식점주 및 편의점주, 소상공인, 약사)
모집 방식 특징	- 대부분 '협회'를 통한 모집으로 확인됨 (예: 미용업협회, 요양기관연합회, 외식업협회, 상인연합회 등) - 약사회는 자발적 신청으로 먼저 신청한 케이스
만족도 총평	- 전체 평균 4.5점/5점 - 전 직군 모두 전반적으로 만족도 높음 (미용업 원장·소공인·약사 순으로 특히 긍정적) - 참석자 중 46명(48%)이 향후 교육·행사 알림 문자 수신 동의하여 재교육 기반 형성

담당자 한마디

이 교육이 지속되도록

2024년에는 관내 16개 상인회 중심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를 확대하여 2025년에는 요양기관 · 미용업 · 소공인 · 약국까지 업종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사용자들이 노동법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주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짧은 시간 동안 노동법을 섭렵할 수 있도록 최고의 강의안으로 2026년에도 찾아뵙길 희망합니다.





장기요양 기관장(2025. 7. 8.)





미용업 원장(2025. 7. 15.)





안양산업진흥원 소공인(2025. 7. 17.)




음식점 및 편의점 점주(2025. 9. 9.)




범계로데오 상인연합회 소상공인(2025. 9. 18.)




안양시 약사회 소속 약사(2025. 9. 24.)

안양시 주요 축제 연계 홍보 부스 운영

사업요약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동인권을 접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 및 시민참여형 행사에 연속적으로 참여하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진로페스티벌, 모두를 위한 좋은돌봄 한마당, 춤축제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축제 현장은 연령과 관심사가 다양한 시민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접점이었으며, 센터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행사에서는 노동을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아닌,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포토박스, 노동상식 퀴즈, 돌림판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부스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즐기며 머무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동인권 메시지를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인권센터를 처음 접하는 시민에게는 새로 알게 된 기관으로, 이미 알고 있던 시민에게는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축제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노동존중의 가치를 일상 속으로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실적

안양시 진로페스티벌

- [일시] 2025. 9. 5.(금) ~ 6.(토) (2일간)
- [장소] 평촌중앙공원
- [주요내용]
  노동인권센터 홍보 및 상담 부스(1개동) 운영

구분	대상	프로그램
1일차 (09:00~15:00)	초·중·고학생	- 노동인권 OX퀴즈 이벤트 - 노동상식 괄호채우기 - 포토박스 운영 - 센터 홍보 리플렛 배포 등
2일차 (13:00~18:00)	학부모 및 일반시민	- 노무사와 함께하는 1:1 노동상담 - 노동법 룰렛 돌리기 이벤트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모두를 위한 좋은돌봄 한마당

- [일시] 2025. 9. 27.(토) 11:00~15:00
- [장소] 안양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앞(실내)
- [주요내용]

홍보 및 상담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리플렛 및 안내자료 배부 - 주요 사업 소개 - 노동상담 연계	- 포토박스 - 돌봄노동자 메시지 벽 만들기 - 돌림판 이벤트

안양시 춤축제

- [일시] 2025. 9. 27.(토) ~ 9. 28.(일) 10:00~17:00
- [장소] 평촌중앙공원
- [주요내용]

사업 홍보	노동인권 상담 창구 운영
- 홍보물 배부 (리플렛 및 노동상식 책자)	- 무료상담 창구 운영 - 노동상식 OX퀴즈

담당자 한마디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노동인권센터가 함께 합니다.

센터를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부스 운영을 준비했습니다. 춤축제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돌봄노동자를 위한 한마당의 따뜻한 공간에서도, 청소년이 모인 진로페스티벌 현장에서도 노동 이야기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사진을 찍고, 돌림판을 돌리고, 퀴즈를 풀다가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라고 묻는 순간들을 마주하며, 그때마다 노동인권은 특별한 강의실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축제 참여는 단순한 홍보 활동이 아니라 시민과 노동 이야기를 나란히 나눈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시민이 모이는 현장으로 계속 찾아가,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양시 진로페스티벌





모두를 위한 좋은돌봄 한마당





안양시 춤축제